

토니 쿠코치 “마이클 조던 vs 르브론 제임스? 비교 불가능”



▲ 마이클 조던(왼쪽)과 르브론 제임스. 사진=spotnews.co.kr

전 NBA 선수이자 명예의 전당 현역자 토니 쿠코치가 최근 'Scoop B'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사이의 GOAT(Greatest Of All Time) 논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6월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조던과 르브론의 GOAT 논쟁은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팬들뿐만 아니라 리그에 몸담았던 선수들도 다채로운 의견을 내며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조던은 커리어 평균 30.1점 6.2리바운드 5.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려 10번의 득점왕을 차지했다. 3년 차 시즌에는 평균 37.1점을 올리며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뽐냈다.

르브론은 커리어 평균 27.2점 7.5리바운드 7.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득점왕은 한 차례에 불과하나 어시스트왕도 차지

한 바 있다. 즉 특점의 조던, 다재다능함의 르브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상 내역은 조던이 위다. 조던은 전무후무한 3년 연속 우승 2번, 파이널 MVP 6회, 시즌 MVP 5회 등 압도적인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조던이 독보적인 GOAT로 여겨져온 것이다.

르브론은 파이널 우승 4회, 파이널 MVP 4회, 시즌 MVP 4회 등으로 조던보다 아쉬운 커리어를 남겼다. 아직 현역이지만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있기에 조던의 커리어를 넘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르브론이 GOAT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르브론이 지닌 최고의 내구성과 역대 득점 랭킹 1위 등의 누적 기록을 주목했다.

그렇다면 레전드 중 한 명인 쿠코치의 생각은 어떨까? 쿠코치는 조던과 함께 뛰며 3년 연속 우승 반지를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쿠코치는 조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평가를 보류했다.

쿠코치는 “같은 시대에 플레이한 적 없는 선수들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는 서로 붙어본 적이 없다. 조던은 분명히 세계 농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제는 르브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단타보다 홈런이 더 많은 '상식 밖'의 선수

'안타는 쓰레기' 라는 말이 있다. 단타를 여러 개 쳐 봤자 홈런 1개의 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홈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야구에선 홈런보다는 단타를 때리는 게 더 쉽다. 지난해 62홈런으로 아메리칸리그(AL) 홈런 신기록을 갈아치운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31)조차 단타 개수가 87개로 홈런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에는 이런 당연한 상식을 깨뜨리는 선수가 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외야수 카일 슈와버(30)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5월 'MBN'에 따르면 슈와버는 전날 현재 614타석에서 96개의 안타를 쳤는데, 이 가운데 단타는 39개, 2루타 16개, 3루타 1개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홈런은 무려 40개에 이른다. 홈런을 단타보다 더 많이 친 것이다.

사실 슈와버는 극악의 컨택 능력을 가진 타자이다. 그래서 삼진이 많다. 지난해 200개의 삼진을 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날 현재 175차례나 타석에서 그대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타력과 선구안을 갖고 있다. 슈와버는 지난해 46홈런으로 내셔널리그(NL) 홈런왕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볼넷도 86개나 얻어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다. 홈런과 볼넷(109개) 모두 NL 2위를 달리고 있다.



▲ 카일 슈와버. 사진=AP/연합뉴스

이러다 보니 타격 기록도 특이하다. 슈와버의 올 시즌 타율은 0.193으로 2할도 되지 못 하지만, 출루율이 0.342로 타율보다 무려 1할 5푼 이상 높다.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으면 선구안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수준을 넘어선 셈이다.

게다가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갖고 있는 슈와버인 만큼, 출루율에 장타율을 합친 OPS는 0.813에 이른다. 타율이 1할대인데 OPS는 0.8이 넘는 비상식적인 성적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MLB 최초로 '1할 타율-40홈런'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이 기록에 근접한 선수는 2021년의 조이 갈로(29)로 타율 0.199에 38홈런, OPS 0.809를 기록한 바 있다.



청국장 명가
구수한 향과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더부러



여름 스페셜
시원한 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국수!

새로워진 주인과 더 맛있어진 더부러

 홍어조림	 치킨	 골뱅이무침
 오징어 철판볶음	 천엽무침	 해물파전

런치 스페셜

12.99 (Weekdays)

비빔국수/졸면/칼국수
수제비/오징어덮밥/청국장
김치 or 해물볶음밥/콩국수
오므라이스/돈까스정식

술과 함께 즐기세요~



더부러 Double O | 909.597.3320
 20627 Golden Springs Dr #1K, Diamond Bar, CA 91789